

징용 배상 '한·일기업 기부 대납' 검토

아시아 신문 보도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기부받아 일본의 피고기업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시아신문이 11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7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12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피해자인 원고 측 의견을 들은 뒤, 일본과의 외교 협의에서 이 같은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일본 측에 기부금 납부와 사죄 등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일본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해결책으로 공표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원고와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면 일본 기업의 기부에 더해 일본 측이 과거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해법은 그간의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방안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고 사죄하기를 바라는 원고 중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배상금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아시아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도 양국이 합의문을 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15년 한국과 위안부 문제 해법에 합의했으나, 위안부 지원단체 반발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사례로 인해 한국과 합의문 체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는 "일본이 한국에 (징용 배상 문제를) 국내 문제로 해결하도록 요구해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합의문 작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려면 한국이 계속해서 일본과 협의하고 원고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 기업들은 배상 이행을 거부해 왔다. /연합뉴스



'도심 속 국가 습지' 장륙습지에 생태관 건립 광주시는 국내 유일 도심 속 국가 습지보호지역인 장륙습지 내에 오는 2026년까지 국·시비 100억 원을 투입해 생태관을 건립한다.

한국 '여권 파워' 세계 2위... 192개국 간편입국

싱가포르와 공동... 일본 1위, 북한은 102위 평가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를 따지는 글로벌 여권 순위에서 한국이 올해도 세계 199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교류 전문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이날 공개한 2023년 1분기 세계 이동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업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토대로 각국의 '여권 파워'를 평가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해 왔다.

해당 여권을 소지했을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국 절차를 통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인지를 지수화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일본(193개국)이었다. 한국과 싱가포르(192개국)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작년 1분기에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192개국으로 공동 1위였고, 한국은 독일과 함께 공동 2위(190개국)를 기록했었다.

한국 여권은 2013년 한때 13위로 평가됐으나, 2018년부터는 세계 2~3위를 오가며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 이어서는 독일과 스페인이 190개국으로 올해 공동 3위에 올랐다.

북한은 무비자나 사실상 무비자로 방문 가능한 국가가 40개국에 불과해 102위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경매, 대박물건 신안군 단독섬, 1월 16일 입찰 낙찰시 100억 가치 있음

단독, 공동입찰 하실 분. 오전경매. 010-3605-5000

효성그룹, 윤대통령 순방 동행 '경제외교' 총력

14~21일 UAE·스위스 방문

조현준 회장 '경제사절단' 동행

조현상 부회장 다보스포럼 참석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두 형제가 '경제 외교'를 위해 해외에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경제 외교와 함께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한 위기 극복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새해 첫 순방으로 14~21일 6박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UAE 방문을 통해 전방위 분야에서 경제외교를 펼친다는 구상이다. 조현준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 등과 함께 '경제사절단'으로 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다.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은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보스포럼은 오는 16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솔트 독일 총리 등 각국 정부를 이끄는 52명의 정상급 인사와 기업 최고경

영자(CEO) 600여 명이 모일 예정이다.

올해로 53번째인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심화된 보건과 안보, 경제 위기 국면을 맞아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에 몰두할 게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다시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조현상 부회장은 다보스포럼과 연이 깊다. 조 부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특히 2007년엔 다보스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Young Global Leader, YGL)로 선정, 글로벌 아젠다 위원회 멤버로서 다보스포럼의 아젠다 선정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조 부회장은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재계 총수들을 비롯해 각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를 통해 공급망 문제와 기후 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기업들이 당면한 현안을 풀어낼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보스포럼은 독일 태생의 스위스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이 1971년 미국 하버드대 교수 등과 유럽 지역 경영인들을 초청해 창설한 '유럽 경영포럼'을 모태로 한다. 1973년 참석 대상을 전세계로 확대했고, 1987년부터 WEF라는 현 명칭을 사용했다. 이후로 저명한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모여 경제를 비롯해 세계가 당면한 현안에 관해 토론하는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민등록증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서 발급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11일 밝혔다.

2008년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었지만,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었다.

12일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됐다.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을 계획한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2월 1일부터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코로나 신규확진 2주째 감소... 위중증은 3% 증가

이달 첫째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하며 감염재생산지수(Rt)가 12주 만에 1 미만으로 내려갔다. 확진자 발생은 줄었으나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보다 약 3% 증가하면서 주간 위험도는 '중간'을 유지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1주(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1만4673명으로, 일평균 5만9239명을 기록했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직전주(45만8709명)보다 9.6%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 수 발생이 2주 연속 줄어들며 유행세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5로, 12주

만에 '1' 미만으로 내려갔다.

확진자 발생과 다소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 발생은 늘었다. 지난주 위중증 환자 수는 일평균 597명(주간 4179명)으로 전주 대비 2.8% 증가했다.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2.9% 줄어든 일평균 57명이다. 위중증 환자 중 89.6%, 사망자 중 94.7%는 60세 이상이었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확진자 발생은 줄었으나 위중증 환자는 늘고 사망자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유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부동산 특급

아파트

- 1.북구 문흥동 라인동산 2차 2층 (전체 리모델링 약5천만원상당) 평형 : 32평 / 즉시 입주 가능. 2억 8천 9백만원.
- 2.북구 용봉동 한신아파트 21층 (전체 리모델링 약3천만원상당) 평형 : 26평 / 즉시 입주 가능. 1억 3천 5백만원.
- 3.북구 일곡동 진로아파트 20층 (전체 리모델링 약4천만원상당) 평형 : 24평 / 즉시 입주 가능. 2억 1천 9백만원.

토지

1.전남 무안군 일로읍 / 전 약 1천평 -시 세 : 4억 5천만원 금 매 : 3억 5천만원

전원 주택 분양

-소 재 지 :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대 지 : 약 130평 (건물 30평)
-주택규모 : 2층 주택 2동 (거실1, 방3, 화장실3, 2층 확장발코니)
-분 양 가 : 1동당 4억 3천만원

년 수익률 20% 투자자 대환영

미래공인 062-954-8482
중 개 사 010-7527-7400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좌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062-511-0849